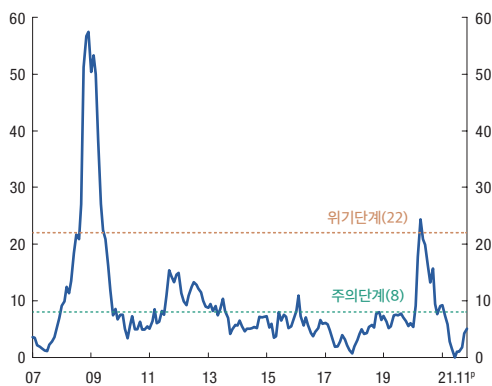

요약

[개 황]

금년 상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세,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금년 6월에 최저치(0)까지 하락한 이후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고 있다.

금융안정지수(FSI)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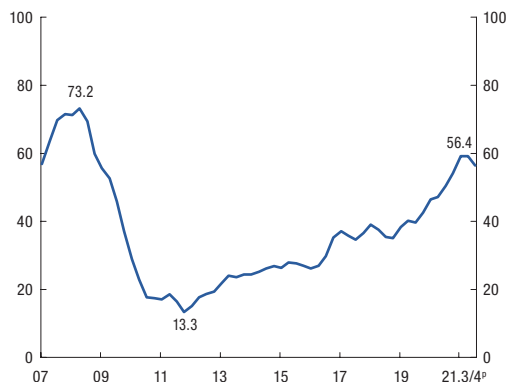
주: 1) 금융안정 관련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

2) 2021년 10월 및 11월은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그간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취약성지수(FVI)가 금년 하반기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취약성지수(FVI)¹⁾²⁾



주: 1)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기관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2) 2021년 3/4분기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이 큰 폭 늘어났다. 가계소득, 기업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양상에 따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신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움직임 등으로 채권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민간신용 증가세와 더불어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금년 9월 이후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 풍부한 시중 유동성, 경제주체의 위험·수익추구 성향 등이 취약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자산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경기회복, 금융지원조치 연장, 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숙박·음식 업종 등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향후 대출규제 강화, 금융지원·완화조치 정상화, 대출금리 상

승 등으로 연체율 상승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능력은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 향후에도 대체로 이러한 모습이 이어질 전망이나 금융·외환시장 여건 변화, 차주 신용리스크 상황 등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약화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높은 가운데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이 국내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현안 분석」 및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금융안정 차원의 주요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먼저 그간 가계부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의 누증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더라도 외국인 증권자금이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가속화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위험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경제 리스크 등으로 실물경기 회복이 부진할 경우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대출 연체율의 상승,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화 등

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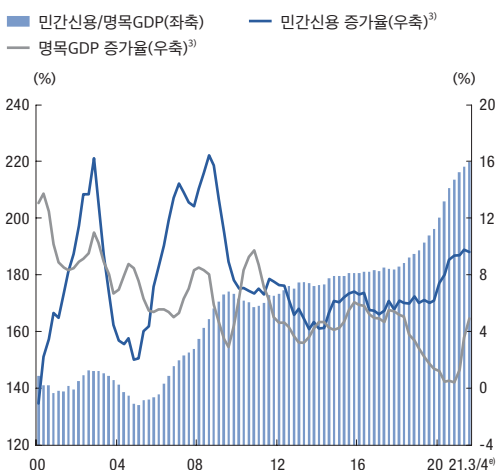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금융부문에서는 앞으로 경제주체의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와 함께 민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들 계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대외 리스크 및 취약차주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대외지급능력과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1. 신용시장

①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219.9%(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 상승(+9.4%포인트)하였다. 명목GDP 성장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 증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정부의 금융지원·완화조치 등으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한다.

민간신용¹⁾/명목GDP²⁾ 비율



주: 1) 2021년 3/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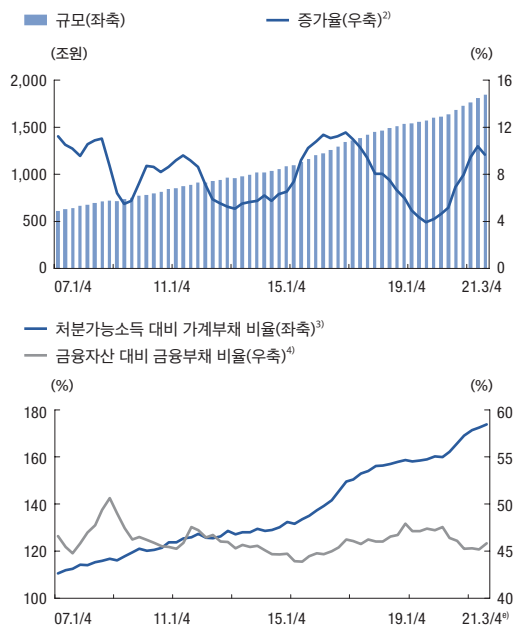
②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1년 3/4분기말 1,844.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174.1%(추정치)로 전년동기(166.0%)대비 8.1%포인트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만 그간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1년 3/4분기말 45.8%(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46.1%) 0.3%포인트 하락하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빠른 대출 증가세 등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완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채무가구, 취약가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가계신용¹⁾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2021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4) 자금순환통계 기준(21년 3/4분기는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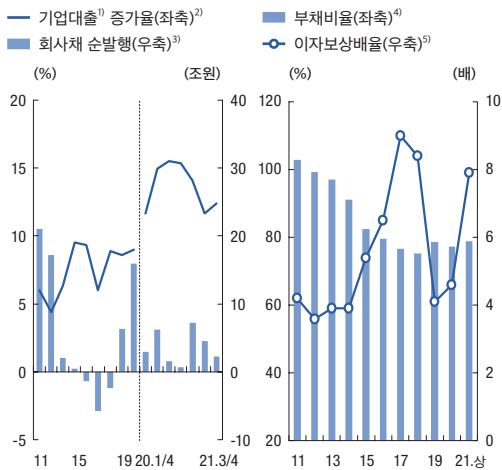
③ 기업신용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재확산, 설비 및 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금융지원·완화조치 지속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및 CP도 금리 상승

전망에 따른 선발행 수요 등으로 순발행되었다. 기업대출은 2021년 3/4분기말 1,497.8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4% 늘어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대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연장,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실물경기 회복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78.9%로 2020년말(77.2%)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 비중(20년말 15.3% → 21년 6월말 12.3%)은 하락하였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7.9배로 2020년(4.6배)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앞으로도 경기회복세와 함께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업 규모 및 업종간 불균등 회복 등으로 취약기업의 부도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신용



주: 1) 기업대출은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료 제약으로 일부 업권 및 기간에 금융보험업 대출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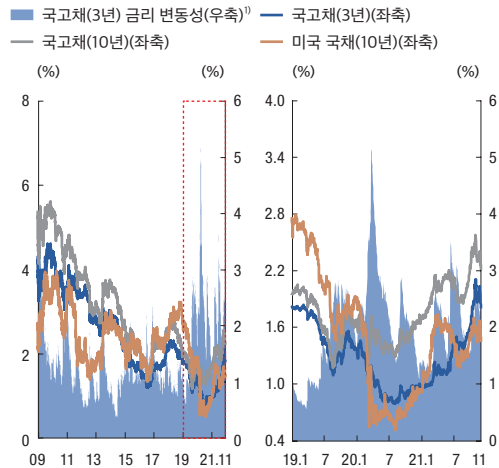
2) 전년동기대비 3) 분기중 기준(20년 이후)
4)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5) 영업이익/총이자비용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KIS-Value,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II. 자산시장

①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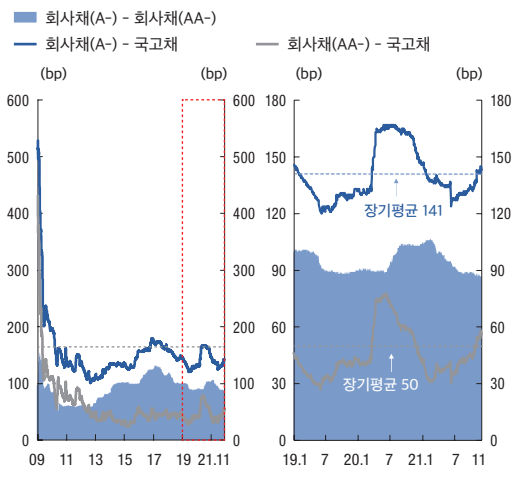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거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안정된 수준을 지속하다 10월 이후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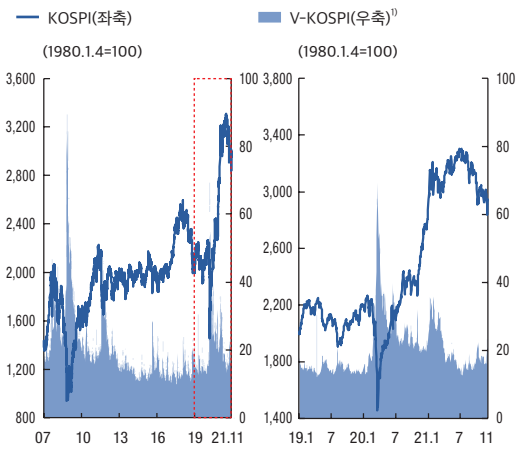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²⁾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주: 1) 3년물 기준
 2) 장기평균은 2010년 1월~2021년 11월 기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② 주가는 7월초 역대 최고치(7월 6일 3,305)를 기록하였으나 8월 중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등에 따른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9월초에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반등하였으나 9월 중순 이후 글로벌 공급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기대 변화 등으로 재차 하락하였다. 11월 말에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우려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낙폭 과대 인식 등으로 반등하였다. 주가 변동성 지수는 10월초를 전후하여 대외요인의 영향으로 일시 상승 후 하락하였다가 11월말 들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다시 상승하였다.

주가 및 주가 변동성



주: 1) KOSPI200 지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KOSCOM

주가 하락에 따라 주식시장 고평가 현상이 완화되고 있으나 예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수익비율(PER)은 11월말 10.67배로 장기평균(2010년 이후 9.75배)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한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낮을수록 위험선호 증대)은 7.17%포인트로 장기평균(2010년 이후 7.67%포인트)을 하회하고 있다.

PER¹⁾ 및 PBR²⁾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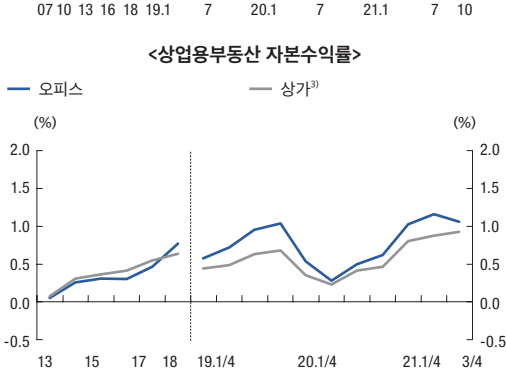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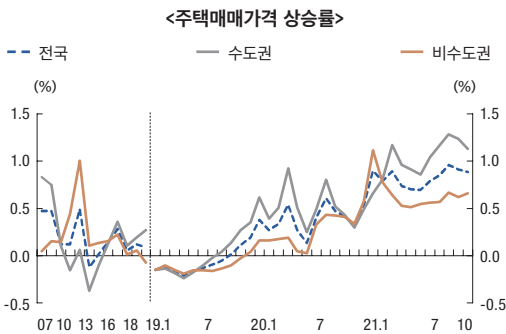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3) 2010년 1월~2021년 11월 평균
 4) 수익주가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 - 국고채(10년) 수익률
 자료: Bloomberg, Refinitiv

③ 주택매매가격은 매매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면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전월세시장은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거래량은 월세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상업용부동산시장은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임대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투자수요가 지속되면서 자본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거래량도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부동산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도 계속 확대되었다. 그러나 향후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경기 조정 가능성 등에 따라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및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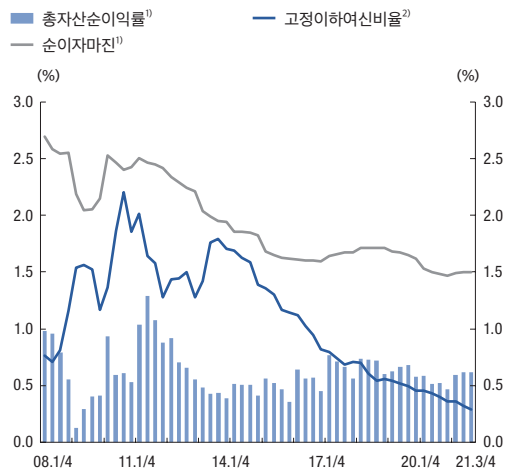
III. 금융기관

①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21년 3/4분기말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2,08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늘어나면서 2009년 1/4분기(+14.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자산건전성은 경기회복, 금융지원·완화조치 등에 힘입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29%까지 낮아지는 등 개선되는 흐름을 이어갔다. 수익성도 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1년 3/4분기 0.62%(연율환산 기준)로 전년동기(0.52%)보다 0.10%포인트 상승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 등 일부 자영업 업종들에서는 부실채권이 증가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은행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②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모든 업권에서 전년동기대비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2021년 3/4분기말 3,31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 늘어났다. 특히 저축은행이 전년동기대비 32.1% 증가하여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대부분 업권에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하락하면서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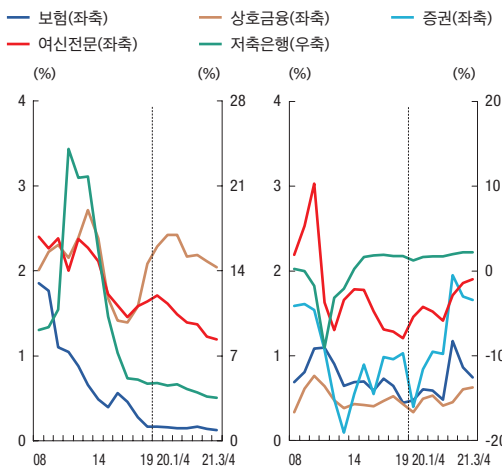
수익성도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상당폭 개선되었다.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취급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이 늘어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수료 수익과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③ 금융기관 간 자금조달·운용을 통한 상호연계성은 금융권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자금운용이 확대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2021년 2/4분기말 3,09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20년 2/4분기말 10.4%) 증가에 그치면서 금융부문 총자산에서 전체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2.7%로 전년동기대비 0.5%포인트 하락하였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에서는 은행권·비은행권 간 거래가 8.4%,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5.9% 증가하였으나 은행권 내 거래는 0.2% 감소하였다. 그 결과 전체 상호거래에서 은행권·비은행권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4분기말 35.6%로 전년동기대비 0.6%포인트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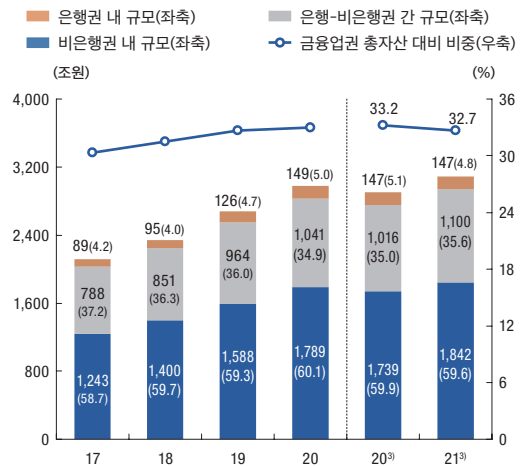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구조를 토대로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실전염 리스크와 집중도 리스크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비은행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¹⁾²⁾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²⁾³⁾



주: 1) 기말 기준, 증권회사 제외
 2) 2019년 이전은 연간 기준, 2020년 이후는 분기 기준
 3)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¹⁾²⁾



주: 1) 상호거래 규모는 자금순환통계 기말 기준
 2) () 내는 전체 상호거래 규모 대비 비중
 3) 각 연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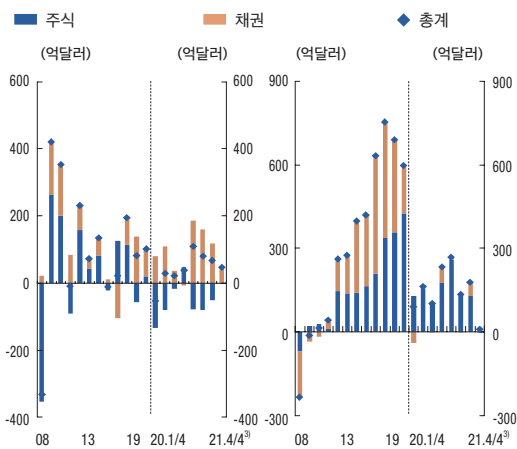
IV. 자본유출입

2021년 1~11월중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순 유출된 반면, 채권투자자금은 순유입되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주력업종의 기업이익 증가세 둔화 우려 등으로 유출세를 나타내었다. 반면 외국인 채권자금은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및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금리수준 등으로 인해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유입세를 나타내었다.

향후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국내외 경기회복세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금리수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금 순유입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2021년 1~10월중 투자규모(589억달러)가 전년동기(394억달러)에 비해 큰 폭 확대되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¹⁾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²⁾



[복원력]

I.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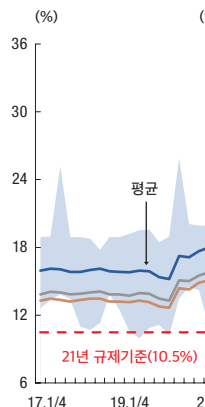
① 일반은행의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승하고,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각각 17.98%, 15.26%로 전년말 대비 0.83%포인트, 0.98%포인트 상승하였다.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기업의 대기성 자금 증가 등으로 2021년 10월말 93.9%로 전년말 대비 1.2%포인트 하락하였다.

금융기관은 향후 금융지원·완화조치 종료,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손실흡수력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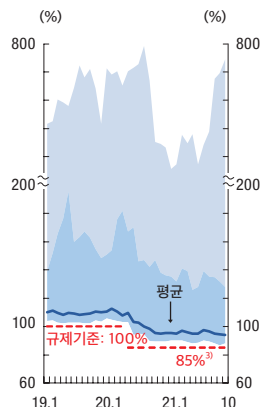
일반은행 총자본비율¹⁾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일반은행 LCR¹⁾²⁾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주: 1)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분포를 나타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2)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월평균 기준

3) 2020년 4월~2022년 3월중 한시적으로 85%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②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도 모든 업권에서 자본 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1년 3/4분기말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762.7%로 전년말 대비 64.1%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비율)은 262.2%로 전년말 대비 35.1%포인트 하락하였다.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 18.6%로 대출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은 8.5%로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수준은 양호한 상태이나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은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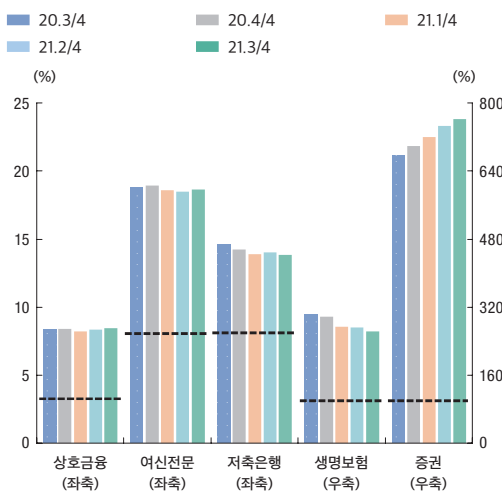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순대외채권은 전년동기대비 증가(+18억달러)하였다. 외환보유액은 상반기중 환율변동 등의 영향으로 변동을 보이다 하반기중에는 대체로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1년 11월말 현재 4,639.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외채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35.5%로 전년동기(34.7%)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적정성 비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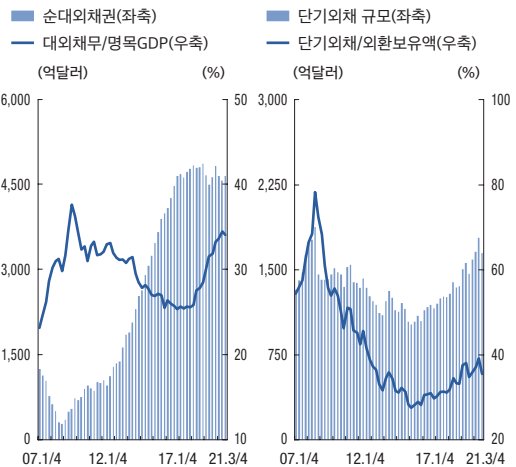


주: 1)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감독기준 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7%, 신용카드회사는 8%),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7%,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은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100%), 증권회사 순자본비율(100%)
2) 점선은 감독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¹⁾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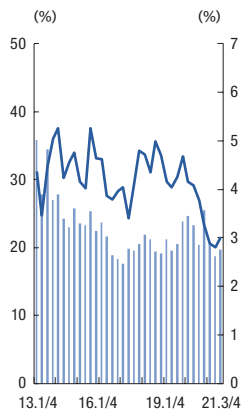
III. 금융시장인프라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1년 3/4분기 중 각각 19.8% 및 3.0%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결제리스크를 나타내는 순이체한도 소진율도 19.4%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 한편 외환결제 중 외환거래를 시차 없이 결제함으로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축시키는 CLS 외환동시결제의 비중은 2021년 3/4분기 중 74.8%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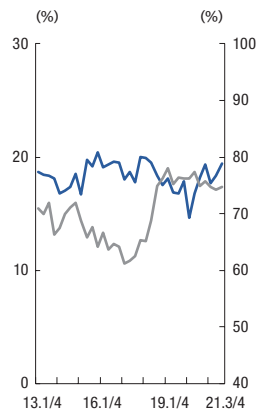
거액결제시스템

■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좌축)¹⁾
— 대기비율(우축)²⁾



소액결제 및 외환결제 시스템

—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 평균(좌축)³⁾
— CLS시스템 이용
외환결제 비중(우축)⁴⁾



-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2)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3)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4)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